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는 旅程

'자서전' 펴낸 철학자 朴異汶의 지적 肖像

鄭明煥

성심여대 교수 · 불문학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모습

30여년을 두고 잘 알아온 친구, 적어도 잘 안다고 생각해 온 친구가 「事物의 言語」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냈다.

나는 좀 놀라면서 그것을 단숨에 읽었다. 그 속에는 내가 그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고, 내가 이미 읽은 그의 수많은 글들에 대한 언급도 있다. 또 내가 아는 그의 과거의 행적을 상기시켜주는 대목도 있다. 그러나 이 자서전을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나 글이나 행위를 재확인한다는 다소 싱거운 기쁨만을 맛본 것은 아니다. 또한 평생의 친구로 자처하면서도 모르고 지내온 어떤 비밀의 고백을 처음으로 듣고 충격을 느낀 것도 아니다. 「事物의 言語」에는 세간의 흥미를 끌 만한 이른바 드라마도 비극도 또 에피소드조차도 들어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떤 각도에서 읽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새롭고 나의 흥미를 끈 것은 철학자로서, 문학자로서, 시인으로서, 또 에세이스트로서 맹활약을 전개해온 朴異汶이 이제 자신의 정신의 여정을 한 총체로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와 방식이었다. 그는 왜 갑자기 자서전을 썼을까, 무슨 이야기를 골라 하려는 것이며, 그 이야기에 「事物의 言語」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책을 받아든 순간 짝눈 이런 의문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알아온 朴異汶의 모습들을 내 나름대로 다시 반복해서 그의 오늘날의 知的 肖像을 구성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朴異汶은 특별한 '小人'

그가 자서전을 쓰게 된 이유는 그렇게 고상한 것이 못된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唾棄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진리나 신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는 한낱 小人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이 60이 되어, 머지 않아 닥쳐올 죽음을 절실하게 의식하는 모든 소인들처럼 그 역시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면서 '무엇때문에 살았을까?'하고 자신에게 묻는다. 한데 이런 물음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되도록 회피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답없이 헛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朴異汶이라는 소인은 특별한 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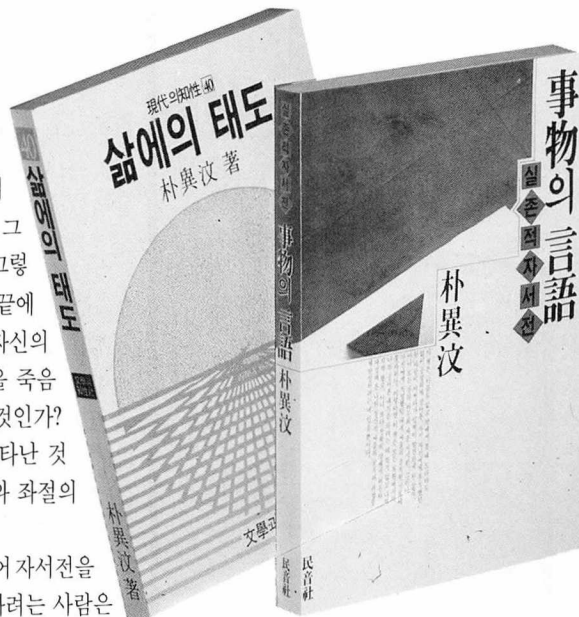
이다. 그는 이 물음을 끝끝내 물고 늘어지려고 한 것이며, 그 결과가 「事物의 言語」이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성찰의 고행 끝에 마침내 삶의 뜻을 찾아내고 자신의 과거와 아울러 앞으로 닥쳐올 죽음조차 스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인가? 혹은 끈질긴 성찰의 끝에 나타난 것은 그 자신이 보기에는 실패와 좌절의 궤적인가?

일반적으로 노년에 접어들어 자서전을 씌으로써 일단 인생을 총괄하려는 사람은 그런 두가지 결론 중의 하나를 내리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事物의 言語」는 어떠한가?

나는 우선 그 마지막 귀절을 이루는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말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다. 300면에 가까운 모든 진술은 결국 이 한마디 말로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소박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과거를 별로 혐오감없이 받아들일 만큼은 행복하다는 뜻이 되리라. 더구나 바로 그 말 앞에 "나는 흐릿한 느낌을 의식하곤 했다"는 술어가 있으니 사실은 행복하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불만스럽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말로는 철학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소년시절부터 찾아 나선 삶의 궁극적 의미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철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행하지 않다"는 말은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안타까운 소망의 표현이며, 어떤 점에서는 불행하다는 뜻이 그 밑에 깔려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려는 이중적인 욕망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날의 지나간 知的 苦行과 그 고행의 덕분에 생산된 많은 업적을 돌아보며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는 자기만족과 아울러 그런 행복한 느낌이 커버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현재 그에게는 남아 도는 것이다.

창작과 철학, 이성과 신비의 야누스

자기만족(자서전의 도처에 깔려 있는 그 기호들을 이 짧은 글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이다)으로 말하자면, 그는 그런 감정에 젖어 볼 충분한 자격이 있다. '초라



한' (이 형용사는 여러번 나온다) 시골뜨기가 더 문명적이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자꾸만 진출하고 성공을 거둔 것이 그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19세기 전반기의 프랑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는 라스티냐크나 줄리앵 소렐과는 다르다. 이 작중인물들이 時流를 탄 반면에, 그의 진출은 시류에 역행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의 자기만족은 더욱 마땅하고, 친구인 나도 그것을 비난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것이다. 이미 중학시절부터 엄습한 허무주의적인 생각, 그것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생각해본 창작 활동과 문학연구, 문학이 채워줄 수 없는 삶과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한 사변철학으로의 경사 그러다가 마침내 사고하는 방식 그 자체를 정립하기 위해서 포용하게 된 분석철학... 그는 일제 말기 이후의 엄청난 시대고를 겪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부당한 채찍질을 가하면서 그런 단계를 밟아왔다. 이 점에서 그의 생애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드라마였고, 그가 최근 십여년에 걸쳐서 발표해온 '따지는 글들'은 그 드라마의 체험과 극복의 소산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드라마는 진실로 극복된 것일까? 나에게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또한 朴異汶 본인도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드라마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난극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자서전을 발표했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삶의 궁극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고 또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처럼 '사물의 언어'의 뜻을 관조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이 분석철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분석과 논증을 거부하는 언어, 주술같고 신탁

같은 그런 암시적 언어의 모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독일적인 사고의 심오성에 끌리고 시를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朴異汶은 분석철학자로서 여전히 이성을 섬겨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관과 관조와 초월의 영역으로 흘러든다는 이원적 지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극이 단순한 상극이 아니라 相補的인 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증법적으로 통합되는 기적이 일어날까? 혹은 그것은 분열된 상태로 남아 그를 끝끝내 괴롭힐까? 또 혹은 그는 어떤 심오한 진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분석적 이성의 감옥에서 과감히 탈출할 것인가? 대부분이 이성적인 인간의 언어로 엮인 이 자서전에 그가 구태여 신비스런 「사물의 언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마지막 것의 가능성이 짙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부질없는 억측일 따름이다. 그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건간에 지성의 근원적인 문제와 양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朴異汶이라는 야누스는 한 대표적 인간으로 남을 것이다.

재미학자의 우국충정 담겨

편집자는 「事物의 言語」와 동시에 나온 그의 또 하나의 책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기를 주문했으나, 제한된 면수 때문에 미처 다루지를 못했다. 다만 한 두가지만 지적해 두자. 그의 근년의 논문과 수상들을 함께 엮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 눈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그의 양면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학문의 참여」라는 소제목하에 모아놓은 몇편의 글들이 그렇다. 여기에서도 그는 무엇보다 분석철학적 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도덕적 판단이나 실존적 결단이 삶에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때로는 분명하게, 때로는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글들(주로 짧은 수필들)은 다소 도학자적인 뉘새를 풍기기조차 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그런 글들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국의 장래 특히 조국의 젊은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한 훌륭한 재미학자의 우국충정의 표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또한 앞으로 누구라도 반드시 시도할 '인간 朴異汶연구'를 위해서는 그것은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할 것이다.